



2022학년도 2학기 장애 이해 교육 학부모 연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2학기 장애 이해를 위한 전체 학부모 연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영우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최수연**과 **권민우**

최수연은 우영우에게 “네 성적으로
아무 로펌도 못가는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반면 **권민우**는
“ 이 게임은 **공정**하지 않아요.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돼
왜? 자폐인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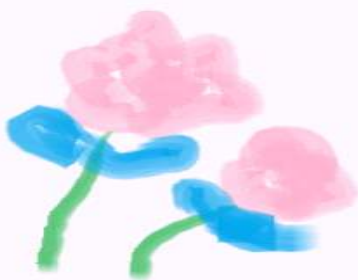
어쩌면 누구나 한번 해봤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왜 맨날 재만 좋은 자리 앉아요?”

“시험 시간을 많이 주면 일반학생에게 역차별 아닌가요?”

“재가 시끄럽게 해서 우리가 너무 피해를 받아요!”

“같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고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진정한 공정을 알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영우는 모든 재료를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영우가 친구 동그라미의 집에 간 날,
동그라미는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어 줍니다.
영우와 함께하면서 새로 만든 김밥입니다.
함께 지내며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게 쌓인 신뢰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한발 걸어 나오면서 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더욱 따뜻한 사회를 위해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림 및 글 출처-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특수교육연구회 SETUP

2022. 11. 7.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